

유틸리티 글로벌, 에릭 뒤센(Eric Duchesne) 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前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임원, 기술 산업화·대규모 플랜트 운영 및 정유·화학 산업
네트워크의 풍부한 경험 보유

휴스턴, 텍사스 - 2025 년 11 월 6 일 -
글로벌 산업 탈탄소화를 선도하는 기업 유틸리티(Utility) 는 오늘, 정유·석유화학·화학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 자문위원(Advisor to the Board of Directors)** 으로 에릭
뒤센(Eric Duchesne) 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뒤센은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의 다운스트림
사업부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대형 프로젝트 담당 총괄(Head of Capital Projects)** 을 역임한 인물로, 혁신적인 신기술의 산업화,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 전반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토탈에너지스에서의 35 년간의 경력 동안, 그는 유럽·아시아·중동·미국 전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2,000 명 이상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다기능 조직을
이끌었다. 특히 정유 및 석유화학 자산의 탈탄소화와 관련된 그린필드 및 리트로핏(기존
설비 개조) 메가 프로젝트를 총괄했으며, **운영 안전성과 신뢰성, 고객 가치 중심의 비용
설계(Design to Cost)**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남겼다.

그는 경력 전반에 걸쳐 주요 기자재 공급업체, 글로벌 엔지니어링·조달·시공(EPC) 기업,
전략적 탈탄소화 파트너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기업 전략 수립과 상생적
상업 계약 체결 분야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유틸리티의 CEO 파커 믹스(Parker Meeks)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에릭은 에너지 메가프로젝트와 대규모 운영을 이끌어온 풍부한 경험과, 탈탄소 기술
상용화에 대한 깊은 열정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그가 유틸리티의 **이사회 자문위원**으로
합류함으로써, 당사가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으로 진출하는 여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에릭의 폭넓은 산업 통찰력과 다운스트림 부문 네트워크는 유틸리티의 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릭 뒤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틸리티의 독자적 수소 생산 기술인 **H2Gen®** 은 전력 공급 없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운전 유연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린 또는 블루 수소보다 경쟁력이 높습니다. 또한
최대 95% 순도의 이산화탄소를 별도로 생산할 수 있어, 특정 산업 환경에서는 탄소

포집(carbon capture) 공정이 불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H2Gen은 전 세계 정유, 석유화학, 화학 플랜트에 즉시 적용 가능한 효율적이고 대규모 확장이 가능한 탈탄소화 솔루션입니다. 유틸리티와 협력해 글로벌 성장의 다음 단계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뒤셴은 프랑스 낭시(Nancy)의 ENSIC에서 화학공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프랑스 최고 명문 공과대학 중 하나인 에콜 폴리테크니크(Ecole Polytechnique) 졸업생이다.

그는 철강 산업의 헨릭 아담(Dr. Henrik Adam)과 시오다 테즈야(Tetsuya Shioda)에 이어, 유틸리티 글로벌의 최신 글로벌 자문위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유틸리티는 각 산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산업 부문에서의 상업적 관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가치 제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About Utility Global

유틸리티(Utility)는 철강, 모빌리티, 정유, 화학, 상류(Upstream) 석유·가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 산업 탈탄소화(Economic Industrial Decarbonization)를 실현하는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자사의 독자적 기술인 H2Gen®은 산업 오프가스 및 바이오가스의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없이 물로부터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전기화학적 공정 기술이다. H2Gen은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별도로 생산함으로써 탄소 포집 비용을 제거하거나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모듈형·확장형·운전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기존 산업 설비에 손쉽게 통합되어 경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틸리티는 산업 탈탄소화에 중점을 둔 글로벌 사모펀드 및 인프라 투자사인 Ara Partners의 포트폴리오 기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utilityglob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About Ara Partners

Ara Partners는 산업 탈탄소화에 중점을 둔 글로벌 사모펀드 및 인프라 투자사로, 2017년에 설립되었다.

제조, 화학 및 소재, 에너지 효율, 친환경 연료, 식품 및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탈탄소화 임팩트가 큰 기업들을 발굴·육성·확대하고 있다.

휴스턴, 보스턴, 워싱턴 D.C., 더블린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23년 12월 3번째 사모펀드를 통해 약 28억 달러(USD)의 자본 약정을 확보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관리 자산 규모는 약 66억 달러(USD)에 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arapartner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 문의:

수전 셀루라(Susan Cellura)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 유틸리티 | scellura@utilityglobal.com